산업통상자원부 **보도자료**
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2017년 4월 20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4. 19일(수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17. 4. 19.(수)	담당부서	에너지신산업정책과
담당과장	유법민 과장 (044-203-5360)	담 당 자	김태우 사무관(044-203-5363) 박성수 사무관(044-203-5366)

우태희 산업부 차관, 에너지 빅데이터 활용현장 방문

- 참석자들과 '4차 산업혁명 대응, 빅데이터 활용방안' 논의 -

□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4. 19,(수) **에너지 빅데이터를 활용**해 **새로운 비즈니스 개발과 사업화를 선도**하는 케이티(**KT**) **네트워크관제센터**(경기도 과천)를 방문했다.

○ 우 차관은 4차 산업혁명 경쟁력의 핵심인 '빅데이터'와 '인공지능(AI)'을 에너지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하고, 우리나라 **에너지 빅데이터 관련 전문가들**과 함께 '**4차 산업혁명 대응, 빅데이터 활용방안**'을 논의했다.

< 방문 개요 >

○ 일시·장소 : '17.4.19일(수) 16:00~17:00, 과천 KT 네트워크관제센터
○ 주요참석자 : 산업부 2차관, KT 부사장, 스마트그리드협회(SG) 부회장, 서울대 빅데이터 연구원장, 한전 본부장, 에너지공단 이사 등 8명
○ 주요 내용 : ① 빅데이터 활용 에너지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(KT), ② KT-MEG센터 운용현황 및 시연(KT), ③ 4차 산업혁명 대응, 빅데이터 활용방안 논의(참석자)

□ 이 날 케이티(KT)는 케이티 마이크로에너지그리드(KT-MEG: Micro-Energy-Grid) 센터 현장 설명을 통해 **'15년 센터 구축을 시작**으로 정보통신기술(ICT)기반의 에너지서비스 사업을 본격 추진 중으로

○ 대표적으로 **한전이 제공하는 전력 빅데이터를 활용**한 전력소비패턴 분석을 통해 고객에게 적합한 소비방식을 알려주는 컨설팅서비스를 연내 출시할 계획이며,

○ 아울러, 자체 운영 중인 **'인공지능(AI) 엔진'**(e-Brain)에 인터넷과 유무선 맞춤형누리방송(IPTV) 사업을 통해 확보한 **고객데이터와 에너지 빅데이터 등을 융합**하여 **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 중**에 있다고 말했다.

Indus

□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**빅데이터 기반의** 인공지능(AI)은 **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**로, 인공지능이 학습·인식·판단하기 위해서는 **빅데이터가 필요**하며 **다양한 생산/소비 주체들을 연결**하면서 **데이터가 집결되는 데이터센터와 같은 플랫폼**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.

○ 스마트그리드협회(SG) 정찬기 부회장은 기업들은 단순 통계를 넘어서 고객들의 행동패턴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고 미래 예측 정확성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에너지데이터를 포함한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**플랫폼 구축**과 함께

- 현재 개인정보는 비식별조치를 거쳐 제3자에게 제공 중이나 국민 수용성 확보를 전제로 **데이터의 공개범위 확대가 필요**하다고 말했다.

○ 서울대 빅데이터연구원 차상균 원장은 **스마트미터***(AMI), 사물인터넷(**IoT**)**기반 가전기기 등의 보급이 확산**됨에 따라 **에너지사용자에 대한 빅데이터 수집·활용이 광범위하게 진행될 것**으로 전망하면서

* ICT를 바탕으로 공급자-소비자 간 양방향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신산업 핵심요소

- 데이터를 생산하는 한전과 같은 공급사도 **에너지사용자 관점에서의 빅데이터 축적**과 **새로운 비즈니스 개발**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○ 아울러, 한전은 **'16. 9월 '전력 빅데이터 센터'를 구축**한 후, **전력통계, 에너지효율잠재량 지도, 전력정보 분석보고서 등을 공개**하고 있으며, 이를 활용한 **새로운 서비스도 발굴 중**이라고 밝혔으며

○ 에너지공단도 건물/공장 에너지사용현황 분석을 통해 노후설비 교체 등 **에너지절감 컨설팅을 진행**하고, **설비교체 자금이 필요한 기업을 발굴해 시중은행과 매칭 지원 중**이라고 말했다.

□ 우 차관은 에너지 데이터를 대부분 에너지공급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**에너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(AI)을 활용한 서비스 개발을 통신사인 케이티(KT)가 선도**하고 있는 것은 빅데이터와 융합 측면에서 의미가 깊다면서

○ **사생활 침해 등의 우려를 해소**하면서 에너지 빅데이터를 활용한 에너지 신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**기술개발, 인력양성, 금융지원 등**과 함께 **신규 서비스 개발**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정책과 김태우 사무관(☎ 044-203-5363), 박성수 사무관(☎ 044-203-536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